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골든 클럽 회보

GOLDEN CLUB NEWSLETTER

FEBRUARY 2021

WE LEAD A HEALTHY AND HAPPY LIFE

VOL. 106

회보 편집팀 2021년 인사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정필 간사, 윤현남 편집장, 오성, 주상선 편집위원, 홍중만 부회장, 정해민 상임고문, 오순문 감사.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늦었지만 편집팀을 대표하여 신년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모두 건강하시고, Covid-19의 압력이 모두 견혀 서로 얼굴 보면서 왕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편집팀도 힘을 모아 회원 소식 잘 전하고, 흥미로운 읽을거리 많이 마련하여 좋은 이웃 동네인 골든클럽을 위해 최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큰 의욕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Covid-19 바람에 모두 갇혀 살게 되어 계획들이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많은 회원들이 회보를 통해 소통하며 지내는 데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시고 또 편집팀도 편집회의를 web meeting으로 전환하고, 빈도(頻度)를 월 3회로 확장하여 다행히도 회보를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발행한 것이 큰 자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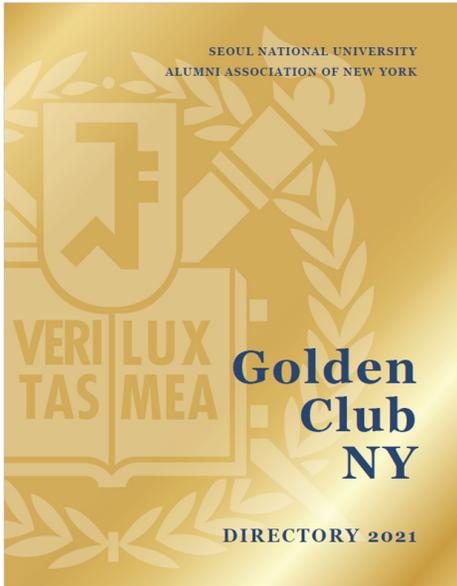
새해는 언제나 희망과 기대로 시작됩니다. 올해는 Covid-19이 팽배(彭排)한 속에서 시작하지만 그래도 “금년에는 좋은 일만 생기겠지.”하며 해 봤으면 하는 일들을 정렬(整列)해 봅니다. 작년부터 계획한 ‘회원 심방’ 칼럼은 1월호부터 시작했고, 여성 회원 특집 회보(원고 기고와 편집 모두를 여성 회원께 부탁)를 계획하고 있으며 그리고 ‘노년의 삶을 습달(習達)하기’ 기사 series를 전문가 회원들과 의논하여 구성해 보려 합니다. 금년 후반이면 Covid-19의 압력이 풀릴 것으로 예상하여 ‘NY에서의 삶의 재 소개’하는 안내 기사들도 회원들에게 부탁드리려고 생각 중입니다. 편집팀의 구성을 다양화하는 차원에서 여성 편집위원을 두 분 이상 영입(迎入)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모든 분의 적극적 참여와 지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회보 편집장 윤현남 (공대64)

골든클럽 Directory update

작년 11월부터 준비하던 2021년 골든클럽 directory가 완성되어 인쇄에 들어갔습니다. 회원들에게는 2월 말경에 배포될 일정으로 있으니 많은 기대바랍니다.



SNU Golden Club Cafe

골든클럽 카페 방문을 초대합니다. 누구나 카페를 방문하여 글과 사진을 볼 수 있으나, 카페에 글을 쓰거나 댓글을 남기려면 '회원가입/Log-in'을 해야 하는데, '카카오 계정' 또는 'Daum' ID/Password가 필요합니다. 새로 만든 카페에서 글을 읽는 것은 자유로우나 글쓰기나 다운로드를 하고 싶으면 가입을 해야 합니다. 가입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1. Internet 주소창에 cafe.daum.net/snugoldenclub 을 type하고 엔터
2. 아래 그림 1에서 가입하기를 클릭
3. Kakao ID 혹은 Daum ID로 Login (만약 두 개의 ID가 모두 없으면 새로 만들어야 함)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운영위원회에 연락 주십시오.

김병순, (T) 703-407-4928,

(E) kbs87417@gmail.com

이준행 명예회장 방문

1월 7일 낮 辛丑年 새해 인사차 이준행 회장을 찾아 보았습니다. 여전히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품모에 컴퓨터 기억력을 앞세워 지난 추억을 소상히 말씀하던 중, 1년 반 전에 타계하신 사모님 이야기에 이르러서는 아직도 혼자 사시는 것 같지않고 언젠가 다시 돌아오실 것 같아 사모님 타시던 승용차도 그대로 두고 회장님 차와 1주일씩 교대로 운전하며, 집안 가구 살림살이도 사모님 체취를 그대로 보존하고 계시다며, 우연히 사모님 쓰시던 경대에서 찾은 흑백 옛날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경대에서 찾은 흑백 옛날 사진.

그리고 새해 첫날 사모님이 사진 찍느라 빠지신 것 같은 기분이라며, 큰아들 내외, 둘째 며느리와 손자 부부, 손녀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 주시며 올해는 28세 손녀딸 짝지워 주려고 방(榜)을 붙이고 계시다며, 이 회장님 지론대로 '겸손하고, 어른 잘 섬기고, 가정에 충실하며 한국어는 물론 불어, 이태리어에도 능통하여 세계 1위의 PR firm(Edelman)에서 근무하다가 영국계 회사에 스카우트된 재원(才媛)이라고 합니다.



이 회장님 오른쪽(연분홍 치마)이 손녀딸입니다.

오후에는 Great Neck 소재 Peter Lugar Steak House 에서 점심과 함께, 골든클럽 컴퓨터 그룹 지원에 써 달라고 \$2,000 check를 건네 주셨습니다.우리 모두 Covid-19 극복하고 다시 모일 수 있게 되기를 고대하면서 건강과 즐거움이 함께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종만)



이 회장님과 방문한 홍종만 부회장

회원 가입을 환영합니다

김한중 동문(의대 56입학)

(M) 908-342-5560

(E) kim6480@gmail.com

Mailing address:

Henry Kim

15 Bexter Dr, N

Basking Ridge, NJ 07920



사진으로 본 우리의 일상



[권정덕, 홍선경] 마스크하고 밖에서 떡국먹고 세배했습니다.



[임호순] 요즘은 날씨가 풀려 오버팩에서 산책하고 화초를 가꾸며 소일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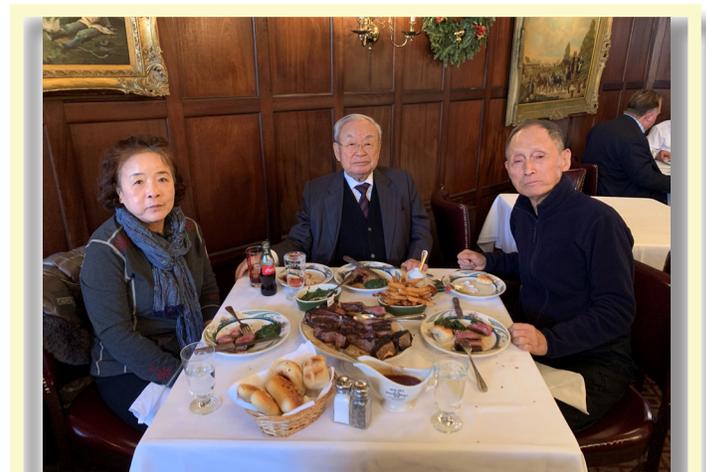
[우규환] 교회 열심히 섬기며 컴퓨터 공부에 열심입니다..



[한태진] 스윙연습장을 설치하고 오전 오후 100개씩 스윙훈련을 하며 때를 기다립니다.



[정해민] Wishing you and yours Happiness and Prosperity in the New Year!



[홍종만, 홍예경] 이준행 명예회장님을 방문하고 Lugar Steak에서

컴퓨터 연구원 송년 줌 파티 개최 성황

블루이웃 성금 한인회에 전달



골든 클럽 컴퓨터 연구원(원장 최수용)이 12월 26일 저녁 6시에 연말 파티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했다. 줌(Zoom)으로 진행된 이날 파티에는 컴퓨터 연구원생 85명과 그 가족 등 총100명이 참여, 연구원의 지난 행적을 회고하고 기념식에 이어 피아노, 기타, 섹스폰 연주 및 노래, 외국인의 케이팝 공연, 빙고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즐거움을 나누면서 연말을 뜻깊게 장식했다.

기념식은 본 연구원의 설립과 오늘에 이르도록 수고한 골든 클럽의 최수용 전 연구원장의 인사말과 이준행 명예회장, 손경택 회장의 축사 및 홍종만 부회장의 연혁 소개, 임호순 고문의 건배 순으로 이어졌다.

8년전 은퇴자들에게 생활의 활력을 주기 위해 시작된 골든 클럽 컴퓨터 연구원은 지금까지 뉴욕, 뉴저지 지역 한인 노년층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강사 양인회)을 통해 학생들의 생활에 많은 도움과 유익을 주어 왔다. 현재 본 연구원의 학생층은 줌 시대에 접어들어 프린스턴, 펜실베니아, 워싱턴, 애틀랜타, 버지니아, LA 등 미주 전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원은 이날 행사를 개최하고 남은 돈 1,500달러를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 받는 블루이웃을 돕기로 하고 뉴욕한인회에 전달키로 했다.

뉴욕 뉴저지 컴퓨터 클래스 송년회를 마치고

지난 11월 초부터 준비해 온 컴퓨터 연구원 2020 송년회에 손경택 회장님, 이준행 명예 회장님을 비롯해 많은 클럽 회원들께서 참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편하신 몸이신데도 끝까지 격려해 주신 최수용 전 컴퓨터 연구원장님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2020년 3월부터 두 달 쉬고 5월부터 zoom으로 전환한 화상 컴퓨터 강의는 제 나름대로 자리잡혀가고 있어 상상도 못 하던 2020 송년회를 구상하고 실현해 골든클럽의 노익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40대부터 90대까지 한데 모여 잠시나마 화상 송년회를 했다는 자체가 새로운 역사라고 자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순간을 클럽 전 회원의 참석이었다면 하는 아쉬움을 느끼면서 비대면 곤혹기가 끝난다 치더라도 클럽의 활성화화를 위해 비대면 프로그램을 더욱더 도입해 활용하는 방법은 연구 과제가 아닐까 마음 먹게 됐습니다.

클럽 회원님들께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골든클럽 컴퓨터 연구원 강사 양인회 농 58)

컴 공부 없었으면 어쩔뻔 했노?

컴 공부 덕으로 화상 송년회에 70-80명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고, 2020년 Pandemic 으로 바깥 출입이 거의 단절된 상황에서, 하루 일과 중 중점적으로(최소 4-5시간)소일거리가 되었고, 공부한 것, 연습, 숙제 등 작품과 카페에 글 올리기 등 오히려 즐기고 있다.

하루 일과가 바쁘다. 노년의 외로움? 더 이상 우리에게겐 해당되는 단어가 아니다.
(정해민)

컴퓨터 클래스는 특별한 혜택

컴퓨터 전문가와 대기업체에서나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던 화상 회의에 참가하면서 비대면 사회생활이 깊숙히 자리잡고 있음을 실감하게 되었고, 양인회 선배 따라 컴퓨터 공부 한답시고 흘러보낸 8년 세월의 흔적을 반추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

양인회 선배님의 대단한 열정에 힘입어 뉴욕 뉴저지 인근의 동문, 가족 친지들 70명 이상이 시대흐름에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은 어느 동창회, 단체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골든클럽 회원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혜택이라고 자부하면서, 앞장선 양 선배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홍종만)

골든클럽 컴퓨터연구원 강의

뉴욕:

매주 화요일 / 오전 10시 - 오후 1시

뉴저지:

매주 월요일 / 오전 9시30분 - 오후 1시

공적집회가 허용될때까지는 Zoom video 강의로 진행됩니다.

문의사항: 양인회 (917-494-0223)
홍종만 (646-342-2667)

이달의 카페에서 만난 사람 - 김익성 (상대53)

"요즘은 1주 서너번 골프를 칩니다" 경제학자로 뉴욕서 20년 공무원 생활

모교 학창시절의 추억을 가슴에 간직하고 유학생 혹은 직장인으로 미국에 와 살고 있는 골든클럽 회원들 대부분이 수십년간 인생의 회로애락과 반전, 굴곡을 경험하면서 삶을 되돌아보는 나이가 되었다. 1959년부터 미국 생활 61년의 김익성 선배를 회보 편집팀(홍종만 부회장, 오성 편집위원)이 Palisades Park 주빌리 카페식당에서 만나 커피와 오찬을 나누며 살아온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바깥 기온은 약 40도로 쌀쌀했지만 식당 옥외 텐트 공간에는 우리를 둘러싸고 3대의 난로가 설치돼 훈훈했다. NJ Bridgewater에서 약 1시간 운전해 부인 전순황 여사와 함께 오신 김익성 선배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요즘 같 곳이라곤 골프장 밖에 없어 1주일에 서너번 부인과 함께 골프를 친다고 근황을 전했다.

도미 유학과정

올해 86세인 김익성 회원은 한국전쟁이 휴전된 1953년 상대에 입학해 1957년 졸업, 1년 군복무 후 1959년 여의도 비행장에서 대한항공 전신인 대한국민항공(KNA)의 Douglas DC-4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Southern Illinois 대학원(경제학 전공) 유학길에 올랐다. 1961년 석사 후 New Orleans의 Tulane 대학에서 1학기 반 정도 박사과정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에 좋은 자리가 있으니 빨리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Buffalo에서 의사로 일하는 형님도 벨 경 뉴욕에 와서 일주일 머무는 동안 그는 "한국 상황이 변동이 생겼으니 당분간 기다리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는 향후 그의 인생의 주 무대가 한국이 아니라 미국 NY로 결정되는 계기가 되었다.

직장생활

그는 1963년 뉴욕에서 Tri-State Regional Planning Commission에 취직하여 NY 메트로폴리탄 지역 개발과 관련해 사회경제적 요인과 인구전망 등을 분석하는 부서장으로 20년간 일했다. 연방 기금을 어느 프로젝트에 지원해야 할 지 가구소득, 인구, 교통량 전망 등 데이터를 분석하여 주지사의 정책 결정을 돕는 것이 Economist로

서 그의 중요한 역할이었다. World Trade Center 72층에 위치한 그의 사무실은 의자만 돌리면 자유의 여신상이 보이는, 전망이 아주 좋은 곳이었다. 1982년 퇴직한 후에 9.11 테러로 옛 직장동료들의 절반이 희생되는 비극도 겪었다.

퇴직 후 그는 유명 브랜드 회사의 Sr. Advisor로 수년간 활동했다. Gucci 가의 파올로 구치가 독자적으로 등록한 PaoloGucci 상표의 라이선싱 독점권을 갖게 된 그의 회사는 한국의 여러 회사들과 계약을 맺었으며, 맨해튼 5번가에는 한국서 제조된



(왼쪽부터 시계방향) 전순황-김익성 부부, 오성 편집위원, 홍종만-홍예경 부부

PaoloGucci 의류, 구두, 가구 등을 파는 store도 생겨났다. 그러나 한국에서 사기꾼들이 라이선스 독점권을 침해하여 3년간 뉴욕서 법정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총각 시절 그는 청년 지도자 양성을 도모하는 청년회의소(JC)의 지부인 Korean-New York Jaycees를 창립해 초대 회장을 맡고 영어잡지 Forum을 발행했다. 그 당시(1968) 뉴욕 한인교포 인구는 5천여명이었고 고등교육을 받은 유학생 출신들이 대다수인 수준 높은 교포사회였지만 대표할 만한 조직이 미약한 상태여서 Korean-NY JC의 활동이 초창기 교포사회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순황 여사와의 결혼

그는 인생의 반려자, 배필을 뉴욕 한인 사회 최초의 교회인 맨해튼의 뉴욕한인교회에서 만났다. 그는 그 교회의 청년회장이었던

데, 당시 찬양대에는 Juilliard 학생들이 많았다. 어느 날 한 Juilliard 학생이 찬양예배시 soloist로 노래하는 것을 보고 이 여학생에 마음이 끌린 그는 결혼까지 결심했다. 총각시절에는 맨해튼에 살던 그는 아기가 생기자 NJ의 Berkeley Heights에서 10여년, Warren에서 10여년 살았다. 두 아들이 따로 나가 살아 둘만 남게 되자 Bridgewater의 타운하우스로 옮겼는데, 잔디 깎을 걱정을 안 해도 되어 만족하면서 살고 있다.

가족소개와 근황

그는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3남 1녀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형님(정신과의사 김익창 박사)은 3년전에 돌아가셨고 누님(미술가 김익난)은 서울에서 은퇴생활, 동생(건축가 김익풍)은 LA의 Oxford Palace Hotel, JJ Grand Hotel 등 많은 건물을 설계하였고 남가주 Seal Beach에 거주하고 있다.

인생 만사가 자신 생각대로 순조롭게만 이루어지지 않음을 그는 절감한다. 그 중 하나가 자녀의 결혼문제이다. Summit에 살고 있는 두 아들이 40대 후반임에도 미혼이어서 은근히 걱정이지만, 독촉도 못하고 지켜볼 따름이다. 버지니아대에서 비즈니스를 전공한 장남은 Credit Swiss 은행 임원으로 일하다 컨설팅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차남은 조지타운대 졸업 후 월가에서 일하다 2년전부터 건설회사의 파이낸싱 책임자로 일하고 있다. 머지않은 장래에 사랑스러운 손자 손녀를 안고 활짝 웃는 모습을 그려본다.

80대 후반의 나이에 아무 불편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그는 부인과 함께 골프를 자주 치며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 집 바로 옆에 골프장이 있고, 멀지 않은 곳에 친구들이 즐겨 찾는 High Bridge Hills 골프장이 있어 이웃들과 어울려 라운딩을 즐기고 있다.

좀더 자세히 많은 에피소드를 나누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며 김익성 선배와 전순황 사모, 홍종만 부회장과 홍예경 사모 등 일행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대담정리-오성)

Blessings of life

최진영(문리55)

Amid loud city noises and even louder campaign speeches, I look up and around to find the autumn in its sublime glory.

Ripe orange-red persimmons are hanging precariously onto dark bare branches high up on the trees against the cool blue sky. During my years abroad, whenever fall came around, I thought of persimmons, which, to my disappointment, no one seemed to know of or care about. The one fine crisp morning, I went to a farmer's market where, lo and behold, I saw a sign in front of an old country lady, saying "persimmon pies." I rushed over to her and asked, "Excuse me, do you by any chance have some fresh persimmons?" She slowly shook her head with a look of uncomprehending surprise because, I thought, she did not understand the hope and nostalgia in my voice. "We don't eat fresh persimmons. We make pies with them," she said. Terribly disappointed, I bought a piece of the pie, which tasted like something between a pumpkin pie and a pecan pie. That was the only time I saw the persimmon ever mentioned. But often in the cold autumn nights I saw in my dreams juicy red persimmons against an icy-blue sky.

Yellow and white chrysanthemums in old palace grounds are another sight that will always remain in my mind's eye. I do not like chrysanthemums bend and wrapped into fancy shape. I like them as they naturally are. Chrysanthemums sitting beside evergreen trees underneath gracefully curving palace roofs are a picture of serenity and, to me, also a sign of resignation to the impending end of the year. Suh Jung-joo, one of the great Korean poets, captured the heart of Koreans in his poem, "Chrysanthemums." The flowers were compared to an older sister, still beautiful no longer young, an image of maturity and serenity. There is no longer youthful zest or wild beauty in the flower, but hints of experience and quiet wisdom.

Finally, the swaying waves of cosmos flowers I saw along the country road on my way to my parents' graves were yet another gift of the fall. Delicately thin leaves and pastel petals reminded me of the fragility of life. The fragile beauty of cosmoses in the chill wind etched in my mind the contrast of the momentariness of human life against the eternal march of time.

Korean autumn, in all its breathtaking beauty and abundance, is a time not just for enjoying autumn leaves on the mountains, but a time also for contemplation and appreciation for whatever the blessings have been bestowed upon us.

팬데믹 시대의 하루

송현자 (가족회원)

어김없이 맞이하는 새 아침, 오늘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꾸만 버거워지는 몸을 추스르며 코끝을 스치는 모닝커피 향을 음미하면서 유리창 넘어 파스한 아침 햇살 그리고 차가운 새파란 겨울 하늘을 바라보며 나 혼자만의 멍때리는 시간을 즐겨 봅니다.

"오늘 뭐 해?" 우리 부부 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컴퓨터 수업." "알았어." 그 시간 동안에 나는 나의 일상을 하면서 부지런히 카톡을 체크해 보고 "thank you" 문자도 보내 봅니다. 컴맹인 나에게 스마트폰이 유일한 나의 정보센터 그리고 친구입니다. 코로나 코비드 19 팬데믹이란 단어들은 이미 나를 세뇌시킨 지 오래되어, 여기서 나오는 숫자들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마감하는 때가 지금은 아니다 싶어 조심 또 조심하고 있습니다. 요즘의 YouTube는 내 손안에서 핸드폰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흘러넘치는 진짜 가짜 뉴스들 그리고 새로운 정보들을 접하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앞

으로의 미래가 변화해 가고 있는지도 이해하진 못하지만 4차 혁명, 빅데이터, 인공지능, 알고리즘, 플랫폼 이런 것들 말입니다. 또한, 긴급속보는 나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무시무시한 내일이 궁금해지는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 기다려집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뒤송송한 세상일을 뒤로하고 무거워진 몸과 복잡해진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Jones Beach로 달려갑니다. 집에서 20분 정도 드라이브해서 가는 거리로 부담 없이 따뜻한 커피와 조금의 먹거리를 준비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떠나간 한적한 겨울 바다를 좋아합니다. 눈 부신 태양이 수평선 저 너머로 숨바꼭질하며 뿜어내는 붉은 저녁노을이 나를 황홀하게 만듭니다. 시원한 바닷바람 그리고 하얗게 밀려오는 거대한 파도 소리는 세상의 모든 잡음을 송두리째 휘몰아 가지고 갑니다. 답답하던 가슴도 뻥 터지고 반쯤 감겼던 눈도 뻥 터지면서 코와 귀까지 깨끗해집니다. 목청을 한껏 뿜아 '홀로 아리랑' 노래도 불러 봅니다. 밤하늘의 둥근 보름달이 모래사장을 환히 비추어 마치 눈 위를 걷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문득 모래 위에 팔베개를 하고 바다가 불러주는 자장노래에 귀 기울이며 잠이 들고 싶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아들의 전화 뒤로 "Hi 할머니, Hi 할아버지" 우리의 보물 1호 들의 환성입니다. 며칠 전 할아버지 솔뚜껍 털모자를 만드느라, 이를 동안 꼼짝하지 않고 앉아 뜨개질을 한 것이 화근이 되었는지 허리가 놀라서 한참을 혼이나 침을 맞은 일이 있었습니다. 꼭 껴안아 주고 싶고 뽀뽀도 해 주고 싶은데.....말입니다. 오늘 밤도 깊어가고 있습니다.

What did I learn during the Corona Virus pandemic crisis?

Kunsook Song Bernstein (간호대 66)

While the COVID-19 is still widespread and impacts on everyone's life including death, illness, economic and financial crises throughout the world, there is a grimmer of hope with vaccine in near horizon. All New Yorkers are at the beginning stage of being vaccinated, and there are steady streams of electronic information how to make an appointment for the vaccine from all different authorities; state, city, town, and various health care systems. I was impressed how well the government including NY state, county, town are organized to generate the information via electronically (e.g., email, cell phone text message).

However, due to a shortage of vaccine compared to the large volume of qualified individuals, making an appointment through the websites indicated is extremely difficult, and the majority of New Yorkers who are trying to make an appointment are totally frustrated and angry.

Witnessing many friends, acquaintances, and neighbors' ways of responding to the pandemic crisis has been an awakening experience for me to reflect on my own reaction and ways to deal with this hardship. At the same time, I have learned that people tend to show their uninhibited nature during the crisis regardless of culture, race, socioeconomic status or education. There are no right or wrong ways to deal with the crisis, just an individual's way. Of course, my observation is limited to my own surroundings and is not based on scientific evidence-based data.

I found that a dear friend of mine who has been always polite, passionate and caring of others became totally self-centered, angry and bitter during the pandemic. She believes that she deserves to be protected and treated, not necessarily before others, but simply because of her importance (?) or her right (?) or privileged social status (?). I saw her entitlement trait which surfaced when she

could no longer wear her morally and politically correct shield to be civil and proper.

The second person is like a family member that I know to be family oriented, diligent, righteous, highly organized, and with a strong moral principle. I was surprised to hear that she had made multiple appointments for the COVID vaccination knowing that there are many people struggling to make an appointment for the vaccination. To be transparent, I have to say that my husband and I were able to get the vaccination today (1/19/2021) because of her.



코비드 백신을 맞고 있는 정해민 고문

So, who am I to say what is right or wrong, and probably I would have done the same for my family? By the way, I noticed that many colleagues who got the vaccines are highly committed to share the information as much as possible and showed a strong conviction to help others.

Personally, I do not condemn or praise anyone for the way they react. Instead, watching others dealing with this crisis, I have asked what is my true nature beyond my role as (wife, mother, friend, etc.) and titles (professor, nurse, researcher, board member of several organizations, etc.). I am not sure what my true nature is. I have heard throughout my life that I am rigid, stubborn, serious, conservative, quiet, and ethical. However, as I am in my golden years, I have changed (according to many long-time friends) and became soft, generous, sociable, and kind. So.....what is my true nature? Well, I would prefer to just be myself and feel comfortable under my own skin rather than pursuing to be somebody in socially idealistic image. This conclusion is what I learned during the corona pandemic crisis, and hopefully I can find my true nature sooner than later. This experience reminds of the comment once I heard from the Korean Buddhist monk during a temple tour in Korea, “생긴 대로 사세요.”

회원 명단 (108명 / 2021-01-21)

강교숙	김영덕	성기로	우규환	임호순	최진영
강에드	김영만	손갑수	유무영	장동만/	최철용
강영선	김익성	손경택	윤현남	고애자	최학주
계동휘	김익성	손대홍/	이강홍	정도현	추재옥
곽상준	김인형	남종현	이국진	정수일	한영수
곽선섭	김재경	손옥화	이 준	조달훈/	한용오
곽승용	김정필	송근숙	이대연	조승자	한태진
구달희/	김종욱	송웅길/	이대영	정해민	하용웅
권정덕/	김창수	송현자	이범선	조상근	홍사만
홍선영	김태일	송학린	이수호	조상선	홍정표
권영대	김한중	신진식/	이용대	주재양	홍지복
권태전	김현중	이정자	이전구	진봉일	홍종만/
김광수	노용면	신응남	이종대	천병수/	홍예경
김광현	민준기	양인회	이종석	천종화	
김동건	박기환	오 성	이준행	최구진	
김문경	박준구/	오순문	이준희	최병우	
김문연	최숙희	오용호	이행순	최수용	
김병순	박희병	오유섭	이흥빈	최순채	
김상만	배상규	오인석	임도혁	최준희	

골든클럽 2021년 행사 일람 (2021-01-21)

1월		Golden Club Directory 발간
3월	3월 27일(토)	신년교례회 Double Tree Hotel, Fort Lee, NJ
4월	4월 14일(수)	Hiking
	4월 22일(목)	Opening Golf Outing
5월	5월 12일(수)	Hiking
	5월 19일(수)	동창회 춘계 골프대회
6월	6월 10일(목)	Golf Outing
	6월 23일(수)	Picnic or Pizza Party
7월	7월 8일(목)	Golf Outing
	7월 21일(수)	Hiking or 박물관, 식물원, 유적지 방문
8월	8월 5일(목)	Golf Outing
	8월 18일(수)	BBQ Outing
9월	9월 9일(목)	Golf Outing
	9월 21일(수)	Hiking
10월	10월 6일(수)	동창회 추계골프대회
	10월 20일(수)	Hiking or Picnic
11월	11월 4일(목)	Golf Outing
12월	12월 4일(토)	동창회 송년회

2021년 연회비 납부 명단 (28명 / \$2,800 / 2021-01-21)

강에드	송학린	임호순	홍예경
강교숙	신진식/	정수일	
곽상준	이정자	정해민	
김상만	양인회	천종화	
김한중	오용호	최철용	
박준구/	우규환	한용오	
최숙희	유무영	홍선경	
박희병	이중대	홍지복	
성기로	이행순	홍종만	

2021년 후원금 납부 명단 (12명 / \$5,600 / 2021-01-21)

김한중 300	오용호 100	정해민 500
성기로 300	우규환 200	최철용 300
송학린 1,100	이준행 2,000	
신진식 300	이행순 200	
양인회 200	임호순 300	

2021년 입회비 납부 명단 (2명 / \$400 / 2021-01-21)

남종현
김한중

2월 생일을 축하합니다.



- 김익성 (상대53)
- 김정필 (공대71)
- 김창수 (약대64)
- 김현중 (공대63)
- 이종석 (상대57)
- 고애자 (사대58)
- 최수용 (상대55)
- 한영수 (의대61)

골든클럽 컴퓨터연구원 강의

뉴욕: 매주 화요일 / 오전 10시-오후 1시
 뉴저지: 매주 월요일 / 오전 9시30분 - 오후 1시
 공적집회가 허용될때까지는 Zoom video 강의로 진행됩니다.
 문의사항: 양인회 (917-494-0223)
 홍종만 (646-342-2667)

골든클럽 회비 납부 양식

이 회비 납부 양식을 Check (payable to **SNUAA**)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 SNUAA 261A 4th St., Palisades Park, NJ 07650
 (T) 646-342-2667 (E) hong1945@gmail.com

성명: (한글) _____ (영문) _____ 생년월일: _____

단과대: _____ 학과: _____ 입학년도: _____ 졸업년도: _____

전화번호: _____ Email: _____

주소 (Home): _____

입회비 \$200
 연회비 \$100
 후원금 (\$) _____